

화엄종 원류 '지론사상' 본격 연구 신호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8월 7~8일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 국제학술대회

'지론(地論)사상'은 중국이 인도로부터 유식(唯識)을 최초로 수용하면서 발생했다. '지론사상'은 유식 계열 중 '섭대승론' 중심의 섭론종이나 현장 스님에 의한 법상종에 앞선 까닭에 인도의 사상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또, <화엄경>의 한 부분이기도 한 <십지경(十地經)>의 해설서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수용해 형성된 까닭에 화엄종의 원류로 진단된다.

중국불교사상사에서 지론종은 화엄종 설립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사사상을 비롯한 중국불교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론사상'은 국내는 물론 중국, 유럽 학계에서 화엄학 연구자들에 의해 화엄사상의 전신으로만 연구됐을 뿐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일본학계에서만 1990년대에 이르러 둔황문헌 해독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흐름이 형성되면서 몇몇 전

문학자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8월 7~8일 금강대 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을 주제로 제4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지론사상'에 관한 단일주제로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행사에는 세계적인 화엄학 권위자인 이시이 코우세이 교수(일본 고마자와대)와 지론종 전문가인 아오키 다카시 선생(일본 아자부고교)을 비롯해 로버트 지멜로 교수(미국 노틀담대), 장웨엔양 교수(중국 중국인민대) 등 해외석학과 최기표·김천학·석길암 등 금강대 연구자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안성두 소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학계에서 미개척분야였던 지론사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계 불교학계에서도 지론사상을 불교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2월 28일 <대승사론현의기>를 주제로 개최했던 제3차 국제학술대회. <현대불교자료사진>

품의 삼계유심(三界唯心)에 대한 복원시대 영변의 해석을 통해 <화엄경론>과 지론종의 관점을 비교할 단서를 제시한다. (7일 오전 11시 30분 발표)

#김천학
김천학 금강대 HK사업단 교수는 <법경론>의 사상적 입장'을 발표한다.

<법경론>은 지론종 저술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쓰인 독립저술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의 발표는 최초의 본격적인 <법경론> 연구다. 그는 <법경론>의 사상적 경향을 지론종 특유의 '식설(識說)'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7일 오후 13시 30분 발표)

#아오키 다카시
아오키 다카시 선생은 둔황문헌 중 지론종 관련 사본만을 연구해 온 전문학자다.

아오키 선생은 주제발표 '둔황 사본으로 본 지론교학의 형성'에서 지론사상의 형성과정을 사상과 인물, 저술 등이 망라된 독창적인 계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한다. (7일 오후 2시 30분 발표)

#오카모토 잇페이
오카모토 잇페이 일본 헤천여학원대 교수는 정영사 해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일본의 신진학자다. 해원은 삼론종의 길장 및 천태종의 지의와 함께 6세기 말 중국불교를 대표하는 3대 불교사상이 중한사람이다.

정영사 해원은 그에게서 지론과 섭론의 융합 혹은 착종이 일어나 삼론종과 천태종은 물론 화엄사상 성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카모토 교수는 '정영사 해원의 저작과 전후관계에 관한 시론'을 통해 정영사 해원 저술의 성립 순서에 관한 검토를 시도했다. (7일 오후 3시 50분 발표)

#석길암
석길암 금강대 HK 연구교수는 '지론종과 <대승기신론>'을 발표한다. 석 연구교수는 <기신론>의 용어와 개념들이 1990년대 이후 발견된 지론종 저술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신론>이 지론종의 용어를 차용해 번역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8일 오전 9시 30분 발표)

#최기표
최기표 교수는 '천태의 지론학 수용과 비판'을 통해 후대에 지론학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 통합불교로서 천태교학이 수립됐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천태지의 대사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천태불교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십지경론>을 소의경전으로 삼은 지론학파의 학설을 짚지 않게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10시 50분 발표)

#김경남
김경남 박사는 일본 동경대에서 <십지경>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신진학자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 '보리류지역 <제경론>의 여역에 대해서'에서 지론사상의 발달이 되는 <십지경론>의 번역자인 보리류지의 번역어에 나타나는 경향을 집중적으로 전착했다.

김경남 박사는 '여실수행(如實修行)에 대해서, 보리류지가 자주 역어에 사용하는 '여실(如實)' 또는 '여실수행(如實修行)'은 '교설에 있는대로 수행한다'라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박사는 "진여(眞如)도 보리류지에 의해 즐겨 사용됐다"며 "대승어가 없는 곳에서 '진여'를 보충해 번역하거나 '평등진여' 등과 같은 동의어를 거둬들여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1시 발표)

#임레 하마르
임레 하마르 헝가리 예오보스노랜드대 교수는 주제발표 '중국불교에서 삼계유심의 해석'에서 지론종 사상이 화엄의 '삼계유심'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임레 교수는 "삼계유심'에 대한 해석을 화엄학 주석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지론종 사상가들의 주석 전통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2시 발표)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일반 참가자에게도 숙식을 제공한다. (041) 731-3621 조동섭 기자

“용선대 석가상 통일신라 조성” 최성은 교수 신라사학회서 주장

창녕 화왕산 관룡사의 용선대에 있는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 이하 석불좌상)'이 통일신라 시대인 722년 무렵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7월 18일 서강대에서 열린 신라사학회 제85차 학술 발표회에서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명문을 통해 석조석가여래좌상이 통일신라 초기인 722년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창녕 화왕산 기슭 관룡산(해발 740m) 정상 부근 용선대에 자리한 석불좌상(전체 높이 3.18m-불상 1.89m, 대좌 1.27m)의 대좌 한편에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 <현대불교자료사진>

서 세 줄에 걸쳐 발견된 명문에서는 '개원십(開元十)·.../월입오(月廿五)·.../성명(成明)·...'의 글자가 판독됐다.

최 교수는 “개원 10년”은 722년으로 석불좌상이 722-730년 사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8세기 전 발표회에서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명문은 720년 무렵 조성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석조아미타불입상이 유일했다. 최 교수는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은 8세기 전반의 유일한 편년작”이라며 “불교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적 상상력·염불수행 조명 한국불교학회·불교학연구회 워크숍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짙자막마시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 02-2260-3130)는 7월 31일-8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불교적 상상력'을 주제로 여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도훈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되며,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불교학 연구자를 비롯한 가족 동반의 참여가 가능하며, 인근 암자 등

을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비 3만원.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010-5501-5589)는 8월 22-23일 고성 건봉사에서 하계워크숍을 연다.

'건봉사와 염불수행'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건봉사와 만일염 불회(이중수 동국대 강사) △염불과 주기도문의 비교(성해영 서울대 HK 연구원) △염불 수행의 의미(법상스님, 중앙승가대) 등이 발표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진전사지와 오대산 월정사 등도 순례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진관사 수록재를 문화콘텐츠로 김응철 교수, 한국미술사연 학술대회서 주장

조선시대 최고의 수록재 도량이었던 진관사에서 봉행돼 온 수록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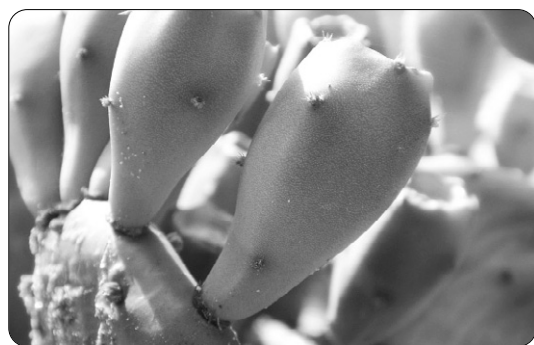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7월 9일 진관사에서 '진관사 수록재'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

했다.

김 교수는 “1000년 넘게 국화로 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진관사의 사격(寺格)과 역할이 역사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진관사 수록재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수록재 관련 불교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향적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Un pèlerinage dans un monastère de France

해인에서 베에르-끼-비까지

수도원의 체험은 향적스님의 인목과 지평地平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가 향적스님의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종교적 교의가 다르고 의식과 문화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 서로 같은 점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 정유스님 | 시인

동양인으로서의 쉽지 않은 서양 가톨릭 수도원의 생활이었으나 향적스님은 겸손함으로 우리 수도사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 수도원의 의식과 생활을 함께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지만, 상호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F. Isaac, abbé | 베에르-끼-비 수도원 원장

세월이 흐를수록 따뜻한 향기와 기쁨을 더해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곳곳에 스며있는 책,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타종교의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스님의 글들은 연꽃처럼 동글고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를 초대 합니다. 이해인 | 시인



김시조 PUBLISHERS
도서인문외
TEL. 02)2278-8728 FAX. 02)2278-8729
E-MAIL. gumsijo@yahoo.co.kr